

# 텍스트의 초구조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 목 차

1. 서론
2. 텍스트구조 분석 방법
3. 초구조: 서사 구조
4. 결론을 대신하여: 초구조의 활용과 발전방향

## 1. 서론

앞 시대의 낭만주의적 언어관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대를 연 소쉬르 이후로 오랫동안 언어학의 최고 분석 단위는 ‘문장’이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파악하고, 언어기호의 구조 및 기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언어체계의 여러 층위에서 기술하고자 하여서, 음소와 운소를 분석단위로 삼는 음운론, 형태소를 분석단위로 삼는 형태소, 문장을 분석단위로 삼는 통사론, 의미소를 분석단위로 삼는 의미론을 발달시켰다. 이에 비하여 오랫동안 텍스트는 언어학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다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야 비로소 문장을 초월하는 언어단위인 텍스트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텍스트라는 새로운 분석 단위의 설정은 연구 대상의 설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의 외연을 넓히고,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독일의 텍스트언어학은 영미권의 담화분석과 더불어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에서 텍스트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91년 겨울 ‘텍스트연구회’가 발족하면서부터이다.<sup>1)</sup>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텍스트언어학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냈다. 한국텍스트언어학회에는 독어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국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 독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텍스트언어학의 이론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언어교육 등 텍스트언어학의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주로 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이제까지 한국에서 텍스트언어학이 발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자생적인 텍스트언어학에 대한 이론을 연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된다. 텍스트언어학은

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편(2004: 5)

2) 한국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조국현(2007)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과 텍스트 능력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사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많이 좌우된다. 또한 텍스트 문법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어와 독일어,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 구조의 차이는 텍스트 차원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언어 사용자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발달이 절실하다.<sup>3)</sup>

본고는 위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텍스트 연구를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텍스트언어학의 이론을 가지고 이론의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다루냐에 따라서 텍스트구조론, 텍스트기능론, 텍스트유형론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텍스트구조론, 그 중에서도 반다이크의 초구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텍스트구조론은 텍스트언어학에서 비교적 이론 시기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부분인데, 이는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 활동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텍스트구조를 활용한 언어 교육이 많이 제시되었다. 많은 응용 분야에 이용되는 만큼 이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 2. 텍스트구조 분석 방법

### 2. 1. 텍스트구조론의 이론적 발달

초기의 텍스트언어학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전통에서 발달하였다. 그래서 텍스트를 단위로 하여, 텍스트의 일반규칙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브링커(1992:21)에 의하면 텍스트언어학은 이론적·개념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방법론적인 관점에서도 구조주의와 변형생성문법에 기원을 둔 문장 언어학의 정의들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텍스트를 ‘문장들의 응집력 있는 연속체’라는 정의를 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장을 텍스트의 구조 단위로 보고, 텍스트 응집성을 문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텍스트구조의 파악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그대로 적용된다. 초기의 텍스트구조 연구는 주로 ‘재수용’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1)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쁜 딸이 셋 있었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한 임금님’이 처음 도입된 후, 이 표현은 ‘그’라는 대명사로 재수용되었다. 이러한 대체는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텍스트가 텍스트답게 되는 기초를 이룬다. 위와 같은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을 텍스트통사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통사론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여 전체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미시구조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3) 물론 이제껏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독일과 한국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연구들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개별적 연구 사례에서 범언어적이고 보편적인 이론과 개별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정리하여 한국의 텍스트에 관한 연구가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텍스트를 통사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아래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2) 가. 가수는 담배를 가방에서 꺼내 물었다. 그런 담배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한다.

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름다운 밤이다.

(2가)의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응결 장치를 통하여 연결되었지만, 내용상 아무런 응집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2나)의 경우는 아무런 응결 장치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텍스트가 응집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적 연관성을 응집성(coherence)으로, 텍스트 표층의 문법적 연관성을 응결성(cohesion)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두 용어의 구분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어 쓰이는 용어는 없다. 위와 같이 내용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텍스트의미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프라그마학과와 테마-레마 구조, 반다이크의 거시구조가 있다.

프라그마학과에 의하면 문장은 형식적인 구조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전달 구조에 의하여 분류된다. 즉 문장은 정보전달이라는 면에서 볼 때, 진술의 출발점이자 구정보를 담고 있는 테마와 정보의 핵심이자 신정보인 레마로 구성된다.

(3) 나는 학생이다.

위의 문장은 ‘나는’이라는 테마와 ‘학생이다.’라는 레마로 구성되어 있다.

반다이크의 경우는 문장(명제)들의 연합인 텍스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시구조라고 하였다. 반다이크에 의하면 거시구조를 가지는 텍스트는 여러 층위를 가지는데, 그 여러 층위에서 각각 거시명제를 추출할 수 있다. 거시명제를 추출하는 과정은 곧 텍스트를 요약하는 과정이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거시명제가 곧 텍스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프라그마학과와 테마-레마 구조 분석은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테마와 레마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반다이크의 경우 역시 반다이크가 주창한 거시 규칙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주제를 얻어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반다이크의 경우는 주제가 없거나 주제가 둘 이상인 텍스트가 존재하는지, 소설이나 우화같이 주제가 내용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브링커와 같이 텍스트 화용론적 접근법을 가진 학자들이 등장한다. 텍스트화용론적인 접근법은 텍스트를 의사소통적인 맥락 안에서의 발화로 보고 텍스트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중점을 둔다. 텍스트 구조 분석에 있어서도 반다이크와 같은 기계적인 접근에 동의하지 않고 주제를 규정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독자가 텍스트로 얻는 전체적인 이해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브링커는 주제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칙으로 재수용 원칙, 유도가능성의 원칙, 양립성을 원칙을 제시하였다.

(4) 브링커의 주제 분석 원칙

가. 재수용 원칙: 주제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나. 재수용되는 대상이 여러 개로 나타날 때 핵심주제와 주변 주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하위 원칙에 의해 구별할 수 있다.

- 1) 유도 가능성의 원칙: 다른 주제를 유도할 수 있는 주제가 핵심주제이다.
- 2) 양립성의 원칙: 그 텍스트의 기능과 양립할 수 있는 주제가 핵심주제이다.

이제까지 텍스트언어학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텍스트 구조 분석의 방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았다. 그런데 위의 분류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분석 방법이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2. 2 초구조

반다이크(1980)는 초구조(Superstructure)라는 일련의 특수한 총괄적 구조를 제안하였다. 초구조는 위의 세 가지 분류, 텍스트통사론, 텍스트의미론, 텍스트화용론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이다. 내용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텍스트의미론과 맥락을 달리하며, 규칙적이라는 점에서는 텍스트통사론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문장 연속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텍스트통사론과 다른 맥락을 가진다. 초구조에 대한 능력은 언어능력이라기 보다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점에서 텍스트화용론과 일치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텍스트통사론과의 유사점 때문에 텍스트화용론과도 거리가 있다. 이러한 초구조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인 언어학에서 텍스트 차원의 내용과 형식(초구조)에 관한 논의를 펼치기에 적합하여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반다이크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다양한 텍스트들은 각각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자들은 ‘화재(火災)’라는 똑같은 소재로 쓴 글을 보고도 글의 종류, 즉 이 글이 보고서인지, 신문 기사인지, 소설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데, 이처럼 텍스트의 유형을 구별하게 해 주는 총괄적인 구조를 초구조라고 한다.

초구조는 고립된 문장이나 문장 연속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 텍스트를 고려해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시구조와 구별되고 거시구조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거시구조가 텍스트의 내용, 즉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반하여, 초구조는 이야기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텍스트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어떤 텍스트의 일부만 보고서 그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파악할 수 없지만<sup>4)</sup>, 초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초구조가 텍스트의 내용보다는 텍스트의 종류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텍스트 각 부분의 배열과 구성에 초구조가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다이크는 초구조를 “텍스트가 적용되는 일종의 도식(Schema)”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산도식으로서 화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생산할 것인가, 해석도식으로서 청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언어사용자들은 초구조의 기초가 되는 규칙들을 알고 있으며, 이는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일부이다.

반다이크는 초구조의 기술 방법에 대하여 상이한 초구조에서 (1) 일련의 범주를 형식화하고, (2) 이 범주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련의 규칙들을 형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방법은 통사론에서 문장을 기술할 때 쓰는 방법론과 유사한데, 초구조는 텍스트의 총괄적 배열을 확정해 주고 일련의 범주들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도식으로, 범주들의 조

4) 장르 문학과 같이 유사한 거시구조를 가진 텍스트들도 있으나, 전체 텍스트를 두고 볼 때 이러한 텍스트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합 가능성은 관습적인 규칙에 의거한다는 점이 통사론에서의 문장 배열 규칙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범주들을 연결시켜 주는 형식적인 규칙은 크게 형성규칙과 부가, 생략, 치환, 대치 등으로 나누어지는 변형규칙을 제시하였다.

초구조의 정의와 기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초구조를 다음 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 3. 초구조: 서사 구조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텍스트 중 가운데 이야기(서사문)의 초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반다이크는 그의 저서에서 서사 구조, 논증 구조, 학술 논문의 초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전공분야,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연구자가 속해 있는 나라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변이를 보여준다. 때문에 반다이크가 제시한 초구조가 한국의 학술 논문의 초구조와 같은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문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편과 고영근 저의 텍스트언어학 개론서에 학술 논문의 초구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초구조가 관습적인 규칙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논증 구조의 경우에도 반다이크 본인이 밝히고 있듯이 논증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또는 대화 대상자들의 세상 지식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형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논증 구조는 맥락에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서사 구조의 경우에는 언어보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변수들, 즉 텍스트의 주제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는 논증이 사용되는 텍스트의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는 것에 비하여 서사 구조는 일상 이야기, 설화류, 문학 작품 등 서로 관련 있는 몇몇 유형으로 고정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sup>5)</sup> 그래서 본고에서는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초구조를 밝히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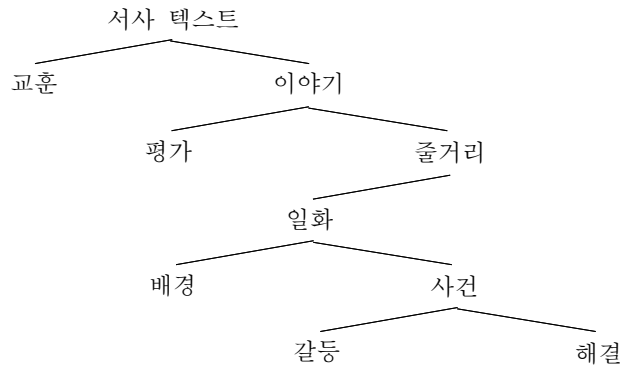
반다이크는 이야기 텍스트는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총괄적 기본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서사 구조의 분석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문학적인 이야기 구조는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에서 상당히 복잡한 변형을 거쳐 파생된다고 하며,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로 다음과 같은 서사 구조를 제시하였다.

#### (5) 이야기 텍스트<sup>6)</sup>

---

5) 초구조가 텍스트의 기능이나 주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연구된 바는 없다. 그러나 줄자는 텍스트 구조와 기능, 주제는 서로를 제약하는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펼치도록 하겠다.

6) 반다이크(1980:233)



이야기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인물의 행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언어사용자들은 어느 정도 흥미 있는 사건이나 행위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게 된다. 흥미 있는 행위나 사건은 규범이나 기대,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여, 이것을 규약화하면 ‘갈등(complication)’이라는 초구조 범주를 얻을 수 있다. 텍스트가 진행되면서, 갈등 범주에 대한 인물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해결’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다. 해결은 인물의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포함한다.

갈등과 해결이라는 두 범주로 일상적인 이야기 텍스트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 두 범주는 ‘사건’이라는 범주로 묶인다. 사건은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즉 사건이 일어나는 환경을 부여해 주는 ‘배경(setting)’이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사건과 배경은 ‘일화(episode)’라는 범주를 형성하게 된다.

동일한 배경 안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과 배경을 달리하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줄거리(plot)’를 형성하게 된다.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반응들을 많이 표현한다. 이러한 범주를 ‘평가(evaluation)’이라고 한다. 이 때 평가는 줄거리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평가와 줄거리는 원래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로부터 사람들은 교훈을 실제적인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 즉 이야기의 사건이 실제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위의 서사 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는 대신, 생성문법론적인 규칙에 유추하여 서사 구조의 형성규칙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6) 서사 텍스트 → 이야기 + 교훈  
 이야기 → 줄거리 + 평가  
 줄거리 → 일화(들)  
 일화 → 배경 + 사건(들)  
 사건 → 갈등 + 해결

#### 4. 결론을 대신하여: 초구조의 활용과 발전방향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텍스트구조론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와 텍스트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반다이크의 서사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보았다. 텍스트언어학은 크게 텍스트통사론적 관점, 텍스트의미론적 관점, 텍스트화용론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구조론과 관련해서 텍스트통사론적인 관점은 재수용을 중심으로 한 미시구조분석을 보았고, 텍스트의미론적인 관점은 프라그마학과와 테마-레마 구조, 반다이크의 거시구조를 살펴보았으며, 텍스트화용론적인 관점에서는 브링커의 주제 분석 원칙을 보았다.

그 후 위의 세 가지 관점에 속하지 않는 텍스트 형식적인 차원인 반다이크의 초구조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초구조는 텍스트의 총괄적 배열을 확정해 주고 일련의 범주들을 구성하는 관습적으로 규정된 추상적 도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초구조의 연구는 이것이 텍스트 적응과 관련되는 도식, 즉 텍스트 생산 도식과 텍스트 수용 도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초구조는 관습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반다이크가 제시한 모든 초구조를 다루기보다는 본고에서는 언어보편적인 서사 구조를 다루었다.

한국의 텍스트언어학 연구에서 텍스트구조는 적지 않게 연구된 주제이다. 그런데 연구의 양상을 살펴보면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국현(2007:144)에서는 한국 텍스트언어학의 통합·연계 학문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 (7) 가. 텍스트과학 및 하이퍼텍스트 연구를 향한 텍스트언어학의 영역 확장
- 나. 텍스트 연구를 통한 언어학과 문예학의 통합 시도
- 다. 텍스트 이론의 수용 및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어학과 외국어학의 연구 교류

텍스트구조 연구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구조 중 초구조의 이론적 영역 확장을 위하여 쓰인 논문은 한 편도 없다. 대개는 (7가)와 같이 텍스트 구조분석을 언어교육에 적용한 논문이다. 2000년 이후 텍스트구조론에 관련된 국어학 관련 학위논문은 총 18편인데, 이 중 단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논문이다. 언어교육에 초구조 이론이 활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초구조 자체가 반다이크가 밝힌 것처럼 ‘텍스트의 적응 도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론 자체에 대한 연구 없이 응용분야에 적용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초구조에 대한 이론적 보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초구조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반다이크가 제시한 모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송무아(2006)의 경우에는 논술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논술 텍스트의 초구조를 나름대로 제시하였으며, 이원구(2005)의 경우에도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쓰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 텍스트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의 두 경우에 제시된 초구조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감이 없잖아 있다. 이것은 텍스트 유형별로 초구조에 대한 관찰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쌓이지 않아서이다. 서구의 언어학자들은 구조주의적 전통에서 언어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것이 오늘날의 텍스트언어학, 화용론, 담화분석의 기초가 되었는데 반하여, 아직 한국에서는 서구와 같은 언어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 유형별로 타당한 초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언어교육과 문예학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유형별로 언어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각 유형별로 초구조를 언어

낼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초구조의 관습화 정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구조의 관습화 정도는 텍스트 유형별로 다르다. 법조문이나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회적 규칙에 의하여 초구조가 정해져 있으며, 소네트(sonnet)와 시조의 경우에도 문화적 규칙에 의하여 초구조가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이나 현대시에 이르면 초구조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며, 더구나 광고와 같은 장르의 경우에는 과연 텍스트 유형에 따른 초구조가 모든 장르마다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거 구조주의 문예학자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하여서 실패한 적이 있다. 설화 그 중에서도 세계 보편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담에서는 구조를 찾아 유형화하는 작업이 성공적이었지만, 시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소설에서는 거의 구조 찾기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초구조의 관습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구조주의 문예학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소설의 구조를 사회·문화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 내에서만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초구조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텍스트 유형도 그 초구조가 범언어적인 초구조인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별적인 구조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어교육에 더 효과적으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과제로는 텍스트의 내용과 기능이 초구조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언어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될 때, 텍스트도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가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텍스트도 둘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능이나 내용이 초구조를 결정한다거나 초구조가 내용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졸자의 논술 교육에서의 경험만을 두고 본다면 텍스트 내용은 단락 구성 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결국 형식을 고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구조에 대한 연구는 각 유형별로 정리된 초구조에서 텍스트 보편적인 초구조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텍스트보편적인 초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속성을 이해하는 또다른 단초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다.

본 연구자는 이제 막 텍스트언어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앞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꺼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 반다이크(1980), 텍스트학, 아르케.
- 보드랑드와 드레슬러(1981), 텍스트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 브링커(1992),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역락.
- 송무아(2006), 논술 텍스트의 구조 분석 및 단락 형성 방안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구(2005), 텍스트 구조 지도를 통한 학문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학문 목적의 한구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국현(2007), 언어 교육에 관한 한국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내용 및 성과, 텍스트언어학 2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43-169.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편(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